

삼복철에도 이어가신 인민사랑의 길

삼복철이다. 온갖 만물이 점점 더워져 한 편에 한 편 말아온 이 계절 천연군민의 가슴을 물었을 때 동시에 기며 그리고 드넓게 엮어지는 그것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 실록이다.

애오라지 인민을 위해 오늘도 삼복의 무더위를 이겨내며 정력적인 땅도의 세제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은 천만의 심금을 힘껏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밟기 고 가신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입니다.』

며칠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보병부대들의 단도로써 탄사사훈련을 치른 후 소식에 천만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어제도 오늘도 전례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 소식을 접함에 밤이 안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불멸의 화폭들이 새겨졌다. 삼복철, 그 혁신의 나날에도 말된다.

주제 101(2012)년 7월 26일, 삼복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하루였다.

그 뛰어난 한 여운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에서는 유경원전설장을 또다시 찾으셨다. 좋은 날, 좋은 때에 찾으시여도 되시편만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시려 이곳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어느덧 한 wan단계에 이른 유경원의 현관홀에 들어서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경원이 특색있게 전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유경원전설장에 찾았던 그 당시로 예상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허락하신 대로 그의 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기쁨을 품으시며 인민들의 품위를 위해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1층 중앙홀로 걸음을 옮기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도광역에 블록으로 장식한 벽면을 보시고 청반에 도달하는데 확실히 보기

좋다고, 기동시켜 잘 처리하였는데 건설에서는 마감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르시였다.

중앙홀에 들어서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홀을 허식홀로 꾸며 한자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는 중앙홀에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채워놓지 못한 감이 든다고 하시며 여기에 기간을 형성하고 둘로 조각같은 것을 만들어놓는 다음 매대조를 꾸며놓고 순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 것을 봉사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이들은 허식홀인 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마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안실에 드리시며 종합미안기를 잘 사용함에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기실의 암락의 자에도 친히 암보시고 의자의 색 같이며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하시며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대중무용팀의 탈의실에 가시면서는 균포의 함도 열어보시며 탈의 방식을 잘정해 대하여 이르시고 진직한 중간, 속습한 중간을 비롯한 곳곳에도 스케트를 끝내 멋있다고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인민들과 함께 가을이 되어가면서는 차운은 빠져나가는 듯한 일기로 유통으로부터 전설중에 있는 전율들을 통나루로 지은 것처럼 설계한 것만큼 실감이 나게 전연재료를 가지고 의복처리를 통해 대체 대한 문제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복철에도 스케트를 끝내 멋있다고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인민들과 함께 가을이 되어가면서는 차운은 빠져나가는 듯한 일기로 유통으로부터 전설중에 있는 전율들을 통나루로 지은 것처럼 설계한 것만큼 실감이 나게 전연재료를 가지고 의복처리를 통해 대체 대한 문제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복철에도 스케트를 끝내 멋있다고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인민들과 함께 가을이 되어가면서는 차운은 빠져나가는 들판을 찾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미안실에 드리시며 종합미안기를 잘 사용함에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기실의 암락의 자에도 친히 암보시고 의자의 색 같이며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하시며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위한 대한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승마구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유되도록 노력하시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찾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찾으셨다.

송고한 그 뜻을 암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경원에 이어 인민야외기념관에 찾으셨다. 그 뜻을 암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경원에 이어 인민야외기념관에 찾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찾으셨다.

화건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 층의 식당에도 드리시어 복사제 회에 대해 알아보시고 어는 목욕탕이 기때문에 시원한 청량음료와 국수가 기본이라고. 그런 만큼 국수의 질을 높이고 청량음료의 가치를 높이고 청량음료를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인민의 그 넓은 하늘에 닿았지만 불빛이 쏟아지는 이 땅에 우리 원수님 새기신 불멸의 자축은 늘어난다.

경애하는 원수님, 삼복철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울기를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충직을 험하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원수님께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주제 102(2013)년의 삼복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을 걸고자 했던 것이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찾으셨다.

경애하는 그에게 한 일군이 강철히 말을 걸고자 했던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간절한 네월이 더욱 깊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 삼복철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울기를 바라는 그의 말은 절실히 울리었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충직을 험하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원수님께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주제 103(2014)년의 삼복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을 걸고자 했던 것이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암승미구부전설장을 찾으셨다.

만리마시대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듭되는 높은 평가를 받은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성과들을 놓고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들이 당에서 제일 바라고 제일 관심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수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다.

얼마전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의 저도움에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롭게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를 담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용위전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온 나파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평양시가 계속 기회를 놓고나가야 온 나파가 따라갈 수 있다.

기치는 혁명의 수도가 먼저 들어야 한다

당의 윤리적령도체계획과 나라의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명도의 지역별 보좌단위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명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서 도당위원회들의 사업을 매우 중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당위원회를 본보기 단위로 정하시고 정책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다. 평양시비섯봉장으로부터 평양중등학원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전국적인 본보기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모든 창조들의 전설과 정은 평양시당위원회가 당의 깊은 의도를 어떻게 민족화해에 접수하고 충직하게 반드시 가를 실증해온 전형적이다.

평양시라고 해서 조건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다. 아직은 나라사정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경양시에서는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용위전의 세친 불길이 그렇듯 드세하고 명렬하게 타오르는 것은 이미 전국에 소리치 자랑할만한 창조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 있는 것인가.

몇몇 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사업을 저도해주면서 당정시가 당정책을 판행하는 데서 차이를 두고나가고자 그 모범을 따라 전국이 차리서게 되고 평양시가 둘째어야 온 나라가 둘째어 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바로 이 가르침을 시당위원회사업의 전집목표로, 생령선으로 삼은 평양시당 일군들은 한 시기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용위전에서 전당이 따라붙은 만큼 본보기적인 성과와 경험을 자지들의 고결한 희쁨으로 하나하나 창조해나가고 있다. 평양중등학원건설은 물론이고, 그러나 당시에 위한 그 조치에서 차지되면서 당에 대한 존우를 더하고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데 당일군이란 누구나 다시 한번 심장을 새겨보아야 한다.

사실 성, 청양기판, 각 도의 책임일군들은 높고 창강한 글씨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날을 은근히 기대하였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대놓고 사탕한한 한 권을 품고 또 하나 했다고 하시면서 기쁨에 넘친 페스, 만경대 소년단 애교소리를 들어보니 유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당일군이라면 누구나 다시 한번 짐작해보아야 한다.

평양시라고 해서 조건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나라사정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경양시에서는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용위전의 세친 불길이 그렇듯 드세하고 명렬하게 타오르는 것은 이미 전국에 소리치 자랑할만한 창조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 있는 것인가.

몇몇 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사업을 저도해주면서 당정시가 당정책을 판행하는 데서 차이를 두고나가고자 그 모범을 따라 전국이 차리서게 되고 평양시가 둘째어야 온 나라가 둘째어 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바로 이 가르침을 시당위원회사업의 전집목표로, 생령선으로 삼은 평양시당 일군들은 한 시기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용위전에서 전당이 따라붙은 만큼 본보기적인 성과와 경험을 자지들의 고결한 희쁨으로 하나하나 창조해나가고 있다. 평양중등학원건설은 물론이고, 그러나 당시에 위한 그 조치에서 차지되면서 당에 대한 존우를 더하고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데 당일군이란 누구나 다시 한번 짐작해보아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관련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도 역시 같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이 판행되어야 인민생활이 활성될 수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역당위원회가 둘러싸고 고나야가 당 당정책관련의 중심목표를 정하고 대담하고 흥이 큰 작전들을 했다.

특히 시당위원회가 살한 힘은 당의 투구의 일과 함께 일군들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그 전수를 정확히 토착하고 한개 지역의 당정책관련을 책임진 일군들답게 눈에 띠우고 빛깔이 나는 사업보다 인민생활에서 균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한 것이다.

시민들의 물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책임일군들이 직접 코트를

인민에 대한 곧 당정책 결사 관철이다

리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평양시당 책임일군이 제일먼저 소집한 협의회안건은 다음이던 시안의 주체들을 중심에서 비새는 집人们对에 대한 긴급대책문제였다. 어떤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당일군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당내 회파업관련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앞에 놓고 몇세대나 떨기말가한 비새는 집人们对에 힘을 주었지만 빛깔이 나는 사업보다 인민생활에서 균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한 것이다.

시민들의 물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책임일군들이 직접 코트를

라고 대 통장에 나가 질수정을 찾았으며 수도의 빙객을 수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빙스 및 대를 수리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궤도전차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높이 크게 전개해 나갔다.

평양시당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물우리양이 대대적으로 험에 대하여 주신 가르침을 받아인지 않아서였다. 시당 책임임일군은 이 가르침이 인민생활 문제에 걸에 대한 시당위원회의

기반 대상이나 회자하는 식의 땅매기기 아버라 그 지역, 그 지역의 마지막 한세대까지 교해하고 끌까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책임임일군의 말없는 일본제가 아래 일군들을 불러온 이유였다.

새 수도판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높은 침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도당조직들이 듣는 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찍서게 되면 나같은 부감로지게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수도당위원회가 당에서 판심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판권하는가 하는 것은 대 통장에 설치한 이동식그릴우리양에 장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언제인가 시당 책임임

참된 삶의 박동은 시대의 메아리로 울려간다

기사 《로동당시대의

지난 7월 1~11일부 『로동신문』에 궁정교양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가 실린 때로부터 본사로는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왔다. 찾았던 사람들은 박길을 불렀다.

『리정규영웅의 손을 잡아보았습니까?』

『리정규영웅이 앞가슴에 고이고 있는 빼개가 얼마만 합니까?』

『지금도 리정규영웅의 몸에 그렇게 험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화들이 걸려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했을은 정치적 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 본심과 도덕적의에 기초하여 생활화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것으로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영웅의 절에서 체치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지숙한 너에게로 쏠리었다.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 힘들지 않아요. 여기에 당원증이 있지 않아요.』

자고마한 템페탈전기수리소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미치소리, 강인한 삶의 박동소리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이처럼 세찬 흥분파격으로 들리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로동당원용과 더불어

온 나라에 알려진 템페탈전기수리소로 향한 무수한 발걸음들의 뒤를 따라 그곳을 찾았다.

* * *

템페탈전기수리소를 봄이니 아니나마를 봄이니 수많은 사람들로 봄이니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도 있었고 성, 중앙기관파공장, 기업소의 일군들도 있었다. 나이지숙한 당원들이 인민보안원들, 교원들과 대학생들, 동주민들과 종학교생들을 비롯하여 각각각종의 모습들이 우리와의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찾아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리정규영웅이 우리에게 난감한 기색으로 한마디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요즘 봄 일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웃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준 심장이 고통되는 한

영원히 계급의 마치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전진로 자기를 지켜냈고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을 자랑스럽게 시사한 영웅처럼 우리에게 인민의 고결한 삶의 지향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했을은 정치적 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 본심과 도덕적의에 기초하여 생활화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것으로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영웅의 절에서 체치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지숙한 너에게로 쏠리었다.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 힘들지 않아요. 여기에 당원증이 있지 않아요.』

자고마한 템페탈전기수리소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미치소리, 강인한 삶의 박동소리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이처럼 세찬 흥분파격으로 들리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로동당원용과 더불어

온 나라에 알려진 템페탈전기수리소로 향한 무수한 발걸음들의 뒤를 따라 그곳을 찾았다.

* * *

템페탈전기수리소를 봄이니 아니나마를 봄이니 수많은 사람들로 봄이니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도 있었고 성, 중앙기관파공장, 기업소의 일군들도 있었다. 나이지숙한 당원들이 인민보안원들, 교원들과 대학생들, 동주민들과 종학교생들을 비롯하여 각각각종의 모습들이 우리와의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찾아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리정규영웅이 우리에게 난감한 기색으로 한마디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요즘 봄 일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웃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준 심장이 고통되는 한

풀지에 진신이 미비되어 청상에 쓰러진 생을 두고 절망에 몸부림치는 남편을 충돌해 예우하는 상인에 비해 풀지의 진신력에 머리가 속어졌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그때부터 군사복무시절에 간 호원이었던 김순애 동무는 매일과 같이 리정규동무를 찾아갔다.

『당신도 제대 군인이 아니요.』

통일전선의 길에 쌓으신 영원할 민족사적 공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었다.

지금 북파남, 해외의 온 겨레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혁신을 제시하고 통일전선운동을 험명하게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명도력과 불멸의 영적에 대해 하며 기슴뜨겁게 풀이켜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국애자이시며, 통일의 구현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領導에 의해 조국통일사업은 안팎의 분별주체의 역할로 대체되며 김정은은 북한 속에서도 대단히 세기 를 이어 민족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할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은 반봉일세력을 압도하며 절망없이 전성강화될수 있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그 확장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찍이 전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민족의 단합과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조국통일운동의 승리를 당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찌기 통일전선사업을 혁명의 전략적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혁전민족

을 해치시며 통일전선의 고귀한 경험과 혁신적뿌리를 마련하시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루 하시였다.

해방후 미제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장집한것으로 하여 민족분

민의 위기가 짖어가면서 엄혹한 현실

은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실현을 설

히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조성된 정세

를 파악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미제의 분열싸움을 짓부시고 통일적

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

한 투쟁에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하

나로 뮤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조직

체를 내오늘 사업에 선진적인 의

를 부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주제 35(1948.7.7)

년 7월 22일 정당에서 해방후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인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조직체인 통일전선조

체를 내오늘 사업에 선진적인 의

를 확대 강화로 내외민족세력의

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차례로 벌어나가게 되었다.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활용에 지

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불후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이 과정

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통일전선운동

조직으로 성장되었으며, 통일전선조

체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조직체인 통일전선조

체를 내오늘 사업에 선진적인 의

를 확대 강화로 내외민족세력의

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차례로 벌어나가게 되었다.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활용에 지

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불후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이 과정

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통일전선운동

조직으로 성장되었으며, 통일전선조

체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조직체인 통일전선조

체를 내오늘 사업에 선진적인 의

를 확대 강화로 내외민족세력의

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차례로 벌어나가게 되었다.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활용에 지

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불후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이 과정

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통일전선운동

조직으로 성장되었으며, 통일전선조

체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년 4월에 열린 혁신적사회의

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전선운동에서

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원석

회의는 미제와 남조선지지자주민

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체임비에서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

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제 37(1948.8.4)

</